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돌봄태도,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고우리¹, 한종희^{2*}

¹건국대학교 병원, ²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the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Woo Ri Ko¹, Jong Hee Han^{2*}

¹Konkuk University Hospital

²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와 전라북도 K군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67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 8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도는 265점 만점에서 평균 195.80±28.4점, 노인에 대한 지식은 19점 만점에서 평균 10.41±2.98점, 돌봄태도는 85점 만점에서 평균 59.96±7.65점, 공감력은 300점 만점에서 평균 226.63±26.65점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수행도는 일반적 특성 중 노인과 관련된 교육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t=2.03, p=.044), 돌봄태도(r=.38, p<.001), 공감력(r=.68,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력($\beta=0.683$,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45.2%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공감력은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중재프로그램 또한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knowledge, caring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involving elderly pati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7 nurse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the G metropolitan city and K-gun, Jeollabuk-do.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ust 24, 2020, to October 10,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o evaluate frequency, per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istrat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the participants' nursing performance with the aged was 195.80±28.4 out of 265, knowledge of the elderly was 10.41±2.98 out of 19, caring attitude was 59.96±7.65 out of 85, and empathy was 226.63±26.65 out of 300. The significant variations in geriatric nursing educational experience (t=2.03, p=.044), caring attitude (r=.38, p<.001), and empathy (r=.68, p<.001) showed a significant amount of correlation.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elderly care nursing performance was empathy ($\beta=0.683$,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5.2%. Empathy was thu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nursing performance for the aged, and appropriate programs to improve nurse empathy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performance.

Keywords : Aged, Knowledge, Care Attitude, Empathy, Nursing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Jong Hee Han(Kwangju Woman's Univ.)

email: hanjonghee@kwu.ac.kr

Received October 6, 2021

Revised October 26,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0년에 15.7%에 이르러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25년 2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환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는 2010년 32.2%에서 2019년 41.6%로 10년간 9.3% 증가하였다[2].

의료기관 중별 노인진료비로 살펴본 노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보다 종합병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3]. 노인환자들은 대학병원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며 서비스의 신속성과 간편성 때문에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노인전문병원에 비해서는 최신의료장비의 구비 및 진료의 높은 신뢰성을 이유로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고 경과가 길며 재발이 쉽다.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도 젊은 사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5]. 따라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노인에게 적절한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 노인환자들은 다른 성인 환자들과 차이가 없는 질병위주의 간호를 제공받고 있다[6].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상황에서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7], 노인전문병원 간호사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간호사도 노인간호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여, 실제 수행으로 이어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간호수행도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고유한 간호문제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8].

과학적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경우, 간호수행을 잘못하거나 간호수행이 부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9]. 지식이 많은 간호사는 환자 돌봄에 있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노인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노인에 대한 지식은 태도를 변화시키고 간호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1].

노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태도는 노인간호수행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노인 간호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12]. 노인 돌봄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돌봄태도는 노인간호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며[13], 돌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수행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7]. 노인간호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돌봄태도를 함양해야 하며 노인간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노인에 대해 어떤 돌봄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식, 태도와 더불어 공감력은 모든 환자가 충족할 수 있는 간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질적 간호의 기본요소가 된다[14]. 공감력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전달하고 이를 상대방이 알아차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15]. 공감력은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환자를 돌볼 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대상자를 이해하게 한다[16].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높은 공감력은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노인환자를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측면의 전인적인 간호 대상으로 인지해 양질의 노인간호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17]. 또한 공감력이 높은 간호사는 노인간호에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노인간호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6].

노인에 대한 지식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노인간호수행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노인간호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돌봄태도의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감력은 질적 간호의 기본요소로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간호수행을 이루어지게 한다[12-14,16,17].

따라서 노인환자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양질의 노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를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간호수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식, 태도, 최근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고[11],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감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17].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8]를 영향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를 살펴

보고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간호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계획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 K군, G광역시에 소재한 총 4개의 200병상 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소아과, 수술실, 외래, 산부인과, 신생아실 등 노인을 간호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입사 후 독립적으로 간호수행을 하는 데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23]에 따라 6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program[24]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연령, 경력, 직위, 교육경험, 동거경험) 8개로 하여 총 160명의 대상자

가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190부가 회수되었고,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총 167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근무경력, 직위, 학력, 노인 관련 교육경험, 노인 동거 경험으로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1977년 Palmore가 개발[10]하고 Lee[25]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간호학과 교수 3인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문항타당도(item-level content validity)의 평균값이 1.0보다 낮은 문항을 확인하고 그 문항을 재 검토 하였다. 그 결과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문항들을 삭제하여 총 19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노인에 대한 신체·생리적 측면(8문항), 심리적 측면(5문항), 가족·사회적 측면(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 ‘잘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19번 문항을 포함한 짝수 문항은 참이고, 홀수 문항은 거짓으로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환산하여 19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고,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이는 탐색적 연구에서 허용 가능한 신뢰도인 Cronbach's α .60보다 높게 확인되었다[26].

2.3.2 돌봄태도

돌봄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27]이 개발한 노화이미 분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8]의 도구를 바탕으로 Kim[13]이 개발한 도구를 Joung과 Hyun[2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와 노인을 돌보는 일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최저 17점,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고 Joung과 Hyun[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3.3 공감력

공감력을 측정하기 위해 Monica[15]가 개발한 공감 측정도구(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ECRS)를 Song[30]이 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총 60개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형 문항 15개는 역산 처리하여 최저 60점에서 최고 300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g[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7이었다.

2.3.4 노인간호수행도 도구

노인에 대한 간호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17]이 개발한 도구로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1점), '항상 하고 있다'(5점)로 5점 likert 척도이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노인수면간호(5문항), 노인일상생활 간호(6문항), 노인 영양간호(5문항), 노인배설간호(7문항), 노인통증간호(5문항), 노인상해예방간호(7문항), 노인피부간호(6문항), 노인의사소통간호(6문항), 노인투약간호(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53점, 최고 2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17]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 5)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공감력이 노인간호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85-202007-HR-001-19)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종료 후 3년 뒤 문서파쇄기를 이용해 폐기할 예정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82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9명(35.3%), 40대 이상이 26명(15.6%)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1.89세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162명(97.0%), '남성'이 5명(3.0%)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104명(62.3%)으로 기혼 63명(37.7%)보다 많았다. 종교는 '무교' 109명(65.2%)이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34명(20.4%), 천주교 17명(10.2%), 불교 7명(4.2%)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7년미만이 107명(64.1%)으로 7년 이상이 60명(35.9%)보다 많았고, 평균 근무경력은 6.43년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44명(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가 12명(7.2%), '책임간호사'가 11명(6.6%)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학위'가 117명(70.1%)으로 '전문학사' 50명(29.9%)보다 많았다. 노인 관련 교육경험은 '교육경험이 없다'가 137명(82.0%)으로 '교육경험이 있다' 30명(18.0%)보다, 노인 동거경험은 '경험이 없다'가 93명(55.7%)으로 '경험이 있다' 74명(44.3%)보다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정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19점 만점에 평균 10.41점이었으며, 돌봄태도는 85점 만점에 평균 59.96점이었고,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53점이었다. 공감력은 300점 만점에 평균 226.63점으로 나타났고, 평균평

점은 5점 만점에 3.78점이었다. 노인간호수행도는 265 점 만점에 평균 195.80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서 3.69점이었다(Table 2).

노인에 대한 지식 중 신체적 영역 정답률은 71.7%였고, 심리적 영역의 정답률은 43.1%였으며, 사회·가족적 영역의 정답률은 42.3%였다. 총 54.8%의 정답률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Variables	Categories	n(%)
Age	20s	82(49.1)
	30s	59(35.3)
	Over 40s	26(15.6)
Gender	Female	162(97.0)
	Male	5(3.0)
Marital status	No	104(62.3)
	Yes	63(37.7)
Religion	Christianity	34(20.4)
	Catholicism	17(10.2)
	Buddhism	7(4.2)
	None	109(65.2)
Career	<7	107(64.1)
	≥7	60(35.9)
Position	Staff nurse	144(86.2)
	Charge nurse	11(6.6)
	Head nurse	12(7.2)
Educational status	Associate degree	50(29.9)
	Bachelor	117(70.1)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Yes	30(18.0)
	No	137(82.0)
Experience living together with the elderly	Yes	74(44.3)
	No	93(55.7)

Table 2. Level of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nurses and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N=167)

Variables	Total score		Average score	
	Range	M±SD	Range	M±SD
Knowledge	0~19	10.41±2.98	0~1	-
Care attitude	17~85	59.96±7.65	1~5	3.53±0.45
Empathy	60~300	226.63±26.65	1~5	3.78±0.44
Nursing performance	53~265	195.80±28.40	1~5	3.69±0.54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in terms of knowledge of the elderly (N=167)

Variables	Phys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The social and family domain	Total
Knowledge of the elderly	71.7%	43.1%	42.3%	54.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 정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노인교육경험(t=2.028, p=.044)이 노인간호수행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in elderly nursing performa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7)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Age	20s	3.70±0.51	0.93	.391
	30s	3.63±0.61		
	Over 40s	3.80±0.43		
Gender	Female	3.69±0.54	-0.34	.738
	Male	3.77±0.52		
Marital status	No	3.66±0.49	-1.11	.270
	Yes	3.75±0.60		
Religion	Christianity	3.76±0.50	1.19	.315
	Catholicism	3.49±0.60		
	Buddhism	3.84±0.41		
	None	3.70±0.54		
Career	<7	3.69±0.49	-0.001	.999
	≥7	3.49±0.61		
Position	Staff nurse	3.69±0.52	0.11	.897
	Charge nurse	3.65±0.72		
	Head nurse	3.75±0.56		
Educational status	Associate degree	3.71±0.56	0.17	.863
	Bachelor	3.69±0.53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Yes	3.87±0.59	2.03	.044*
	No	3.66±0.52		
Experience living together with the elderly	Yes	3.77±0.50	1.55	.122
	No	3.64±0.56		

*p<.05

3.4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공감력 및 노인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돌봄태도와 공감력은 노인간호수행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태도가 높을수록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아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8, p<.001$)를 나타냈고,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r=.68, p<.001$)를 나타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n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N=167)

Variables	Knowledge r(p)	Care attitude r(p)	Empathy r(p)	Nursing performance r(p)
Knowledge	1			
Care attitude	.11 (.887)	1		
Empathy	.20 (.009)	.56 ($<.001$)	1	
Nursing performance	.04 (.568)	.38 ($<.001$)	.68 ($<.001$)	1

3.5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노인간호수행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노인 관련 교육경험 변수를 더미처리하여 회귀분석에 추가하였다. 각 영역의 변수 투입에

따라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유의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여부를 검정한 결과 1.864로 2에 가깝게 나타나므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여부를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634~0.918으로 모두 0.1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VIF값은 1.089에서 1.579로 10.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개체 중 1.0 이상인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잔차를 분석한 결과 산점도를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와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고, P-P 도표를 통해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이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Model 1의 설명력은 1.8%($F=4.11, p=.044$)로 나타났으며, 돌봄태도를 투입한 Model 2에서는 설명력 15.5%($F=16.28, p<.001$)으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태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력을 투입한 Model 3의 설명력은 45.2%($F=46.56, p<.001$)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돌봄태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력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N=167)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193.73	80.58	$<.001$	110.05	6.86	$<.001$	31.84	2.08	.039
Educational experience related to the elderly (ref.= no)	0.16	2.03	.044	0.16	2.19	.030	- 0.01	- 0.10	.919
Care attitude				0.38	5.27	$<.001$	- 0.01	- 0.07	.947
Empathy							0.68	9.44	$<.001$
R ²	.024			.166			.461		
Adjusted R ²	.018			.155			.452		
F(p)	4.11(p =.044)			16.28(p <.001)			46.56(p <.001)		

ref. =Reference

4. 논의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과 함께 노인환자들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종합병원에서도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노인간호가 요구됨에 따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19점 만점에 평균 10.41점으로 총 정답률 54.8%이었다.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 11]에서는 정답률 각각 49%, 49.6%였다. 이렇듯 정답률이 40~60%로 과거 결과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환자가 증가함으로써 노인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행연구[31]에 따르면 실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으며 국가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 교육과정에서 노인간호 교육의 역할을 재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임상에서도 노인간호 영역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에 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통해 노인과 관련된 지식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동료들의 역량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적, 생리적 영역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심리적, 가족 및 사회적 영역에서는 중간 점수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한 전반적인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노인 돌봄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53점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3.89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는 3.3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기술 습득 모형[32]에서 숙련단계 임상등급을 7년 이상 경력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Kim과 Kwon[17]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이 높았고, 평균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간호사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7년 미만의 대상자가 107명(64.1%)로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단계의 대상자가 많았다. 또한 노인환자와의 접촉기회가 본 연구 대상자보다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Kang과 Jeong[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 비해 낮은 연령층 및 임상경

력의 간호사가 많아 노인과의 접촉기회가 적었던 것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이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하여 젊은 연령은 더욱 노인과의 접촉기회가 줄어 노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태도를 정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돌봄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유사 체험장비'를 활용한 노인생애 체험과 같이 노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미 구축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력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었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 3.75점,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g[30]의 연구에서는 3.71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모두 중간점수 이상이었다. 선행연구 [16, 17]에서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공감력의 점수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수행된 공감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의 주체성을 중요시하여 상대의 자유를 고려하는 신개인의주의[33]의 사회적 분위기 전환 또한 공감력의 개념인 상대의 입장을 느끼고 인식하여 이해된 내용을 전달해 상대가 이를 지각하는 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노인간호수행도는 265점 만점에 평균 195.80점(5점 만점에 평균 3.69점)이었다.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평균 210.58점(3.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평균 200.50점이었다. 선행연구 중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노인이 주 간호대상자이며 노인에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에서 노인간호수행도가 높았던 것[19]은 간호인력의 수급 차이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의 수급보다 종합병원 간호인력의 수급 저조로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아 각 환자의 직접간호 시간이 짧아져 나타난 결과였다. 선행연구[3]를 통해 노인환자에서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노인환자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사의 수급률 및 이직률이 노인

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제한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수행도의 차이는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도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수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온 연구결과[11]로 미루어 보아 노인교육이 긍정적인 노인간호를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7, 11, 17]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임상경력, 직위, 노인동거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20대, 30대, 임상경력은 7년 미만의 일반간호사로 편향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의 차이, 다양한 연령대와 임상경력 및 직위를 고려하여 선정된 대상으로 한 확대연구를 제한한다. 또한 노인 동거 경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경험의 유무만을 조사한 것으로 광범위한 기간의 경험이 조사되어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 수가 비슷했음에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동거 기간과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간호수행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돌봄태도와 공감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도 돌봄태도와 노인간호실천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won[17]의 연구에서도 공감력이 높을수록 노인간호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수행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수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경험하거나 습득하지 않은 간호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8]. 따라서 노인간호 교육내용과 노인간호

임상실무의 연계성을 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중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노인에 대한 지식 변수를 제외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Model에 변수를 투입할수록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를 투입한 Model 1의 모형이 유의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간호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돌봄태도를 추가 투입한 Model 2에서 설명력은 15.5%였으며 돌봄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공감력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 45.2%로 증가하였으며 공감력은 노인간호수행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공감력은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다[16]. 공감력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향상이 가능하며[34], 공감능력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발전이 가능하지만 단기간에 습득하기 힘들다는 점을[35] 고려하여 일회성의 단기적인 교육보다도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력을 보수교육과 같은 간호사 의무 교육으로 다루거나 노인간호 의무교육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공감력을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한한다. 공감력은 간호사의 모든 경력단계에서 노인환자를 대하는 간호사가 함양해야 할 역량으로 생각되며,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의 공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노인간호수행도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노인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돌봄태도 및 공감력이 노인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노인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감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일개 지역사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감력으로만 나타났다. 추후 기한을 설정하여 최근 노인인구와 관련된 교육경험의 여부, 노인동거여부와 노인과의 접촉기회 및 간호사 일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공감력을 강화시키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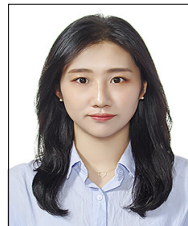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 2017 ~ 2067(based on the 2017 Population Censu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c2019[March [cited 2019 March 28].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73873_7&rs=/assist/synap/preview, (accessed Mar. 27, 2019)
- [2] E. Y. Kim, 41.6% of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in health insurance, 9.3%p increase over 10 years, cheongnyeon-uisa, c2020 [cited 2020 Oct 7], Available From: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dxno=2003520>
- [3] D. H. Choi, Analysis of the status of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Statistical repor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Korea, pp. 2-4.
- [4] D. B. Kim, M. J. Kim, H. S. Kim, H. J. Kim, Y. S. Park et al, "Experience in Hospital Choic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No.54, pp.143-157, 2020.
- [5] K. H. Kang, "Ambulance service use by elderly adults: Based on 2008~2011 Korea Health Panel Data",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29, No.5, pp.96-103, Oct. 2015.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5.29.5.096>
- [6] J. Y. Jeoung, S. Y. Yoon, "Elder care related knowledge, attitudes, nursing practice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in geriatric hospital health personnels",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14, No.3, pp.233-241, Dec. 2012.
- [7] M. R. Kang, K. S. Jeong,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7, pp.127-137, Jul. 2018. DOI: <https://doi.org/10.5392/KCA.2018.18.07.127>
- [8] H. E.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elderly, and performance on elderly car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Korea, pp.70, 2009.
- [9] S. C. McMillan, "Tittle M. Hagan S, Laughlin J. Tabler R.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in veterans hospitals about pain management in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Vol.27, No.9, pp.1415-1423, Oct. 2000.
- [10] E. Palmore, "Facts on aging: a short quiz", *The Gerontologist*, Vol.17, No.4, pp.315-320, Aug. 1977.
- [11] Y. H. Kwon, H. Y. Lee, S. S. Hwang,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785-5791, Nov.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785>
- [12] C. N. Kim, Y. H. Kwon, "The relationship with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 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13, No.1, pp.39-50, Feb. 2009.
- [13] Y. O. Kim,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car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p.56, 2009.
- [14] B. A. Carper, "Fundamental Patterns of Knowing in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1, No.1, pp.13-24, Oct. 1978.
- [15] E. L. L. Monica,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4, No.4, pp.389-400, Dec. 1981. DOI: <https://doi.org/10.1002/nur.4770040406>
- [16] N. S. Seo, J. S. Moon, S. H. Hong, Y. H. Park, "The influence of attitude, experience and empathy on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who have no caregiv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2, pp.179-191, Jun. 2016.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2.179>
- [17] Y. K. Kim, S. H.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9, No. 3, pp.203-213, Dec.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18] J. M. Ryu, M. S. Kim,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leadership on elderly care performanc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1, No.4, pp.392

- 402, Nov. 2016.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6.41.4.392>
- [19] E. J. Kim, K.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2, No.2, pp.165-73, May.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65>
- [20] J. Y. Park, *Influence of Nurses' Stress for Elderly Car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s*,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p.26, 2017.
- [21] Y. J. Do, Y. S. Kang,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Moral Sensitivity on Elderly Care Performance of Geriatr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 Vol.20, No.5, pp.128-136, May, 2019.
- [22] H. J. Roh, E. J. Kim, S. H. Sok, "Influences of Nurses' Empathy and Self-efficacy on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in an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INCS) Uni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5, No.1, pp.9-16, Mar, 2017.
- [23] S. R. Donley, "Health care reform: implications for staff development", *Nursing Economic*. Vol.12, No.2, pp.71-74, Mar. 1994.
- [24]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Nov.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25] C. J. Le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Kangwon-do, pp.64, 2003.
- [26] W. P. Kim, "Basic Statistical Analysis, Rewrite Statistical Analysis", p.541, Wisein Company, 2017, p.328
- [27]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Jr,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Oct. 1984.
DOI: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8] A. J. Maxwell, N. Sullivan,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28, No.8, pp.341-345, Aug. 1980.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1980.tb01095>
- [29] H. Y. Joung, H. J. Hyun, "The effects of senior simul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facilities employees' attitudes for elderly care, understanding of the age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3, No.2, pp.222-230, Jun. 2012.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2.23.2.222>
- [30] E. S. Song,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pp.65, 2015.
- [31] S. H. Baik, D. S. Shin, S. O. Chang, G. R. Hong, S. H. Kwon, M. S. Kim, et al. "Baccalaureate competencies and curriculum in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0, No.2, pp.76-85, Aug. 2018.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8.20.2.76>
- [32] G. S. Jang,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201, 2000.
- [33] Y. G. Jeong, "A reconstruction of dewey's individualism", *korean society of ethics*, Vol.7, No.1, pp.21-48, Jun. 2018.
DOI: <https://doi.org/10.22948/ethics.2018.7.1.21>
- [34] G. Ançel, "Developing empathy in nurses: an inservice training program",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20, No.6, pp.249-257, Dec. 2006.
DOI: <https://doi.org/10.1016/j.apnu.2006.05.002>
- [35] P. Sully, J. Dallas, *Essential communication skills for nursing*, p.215, Elsevier Health Sciences, 2005.

고 우 리(Woo-Ri Ko)

[정회원]



- 2021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1년 8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병원

<관심분야>

노인, 간호사

한 종 희(Jong Hee Han)

[정회원]



- 2012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 암생존자